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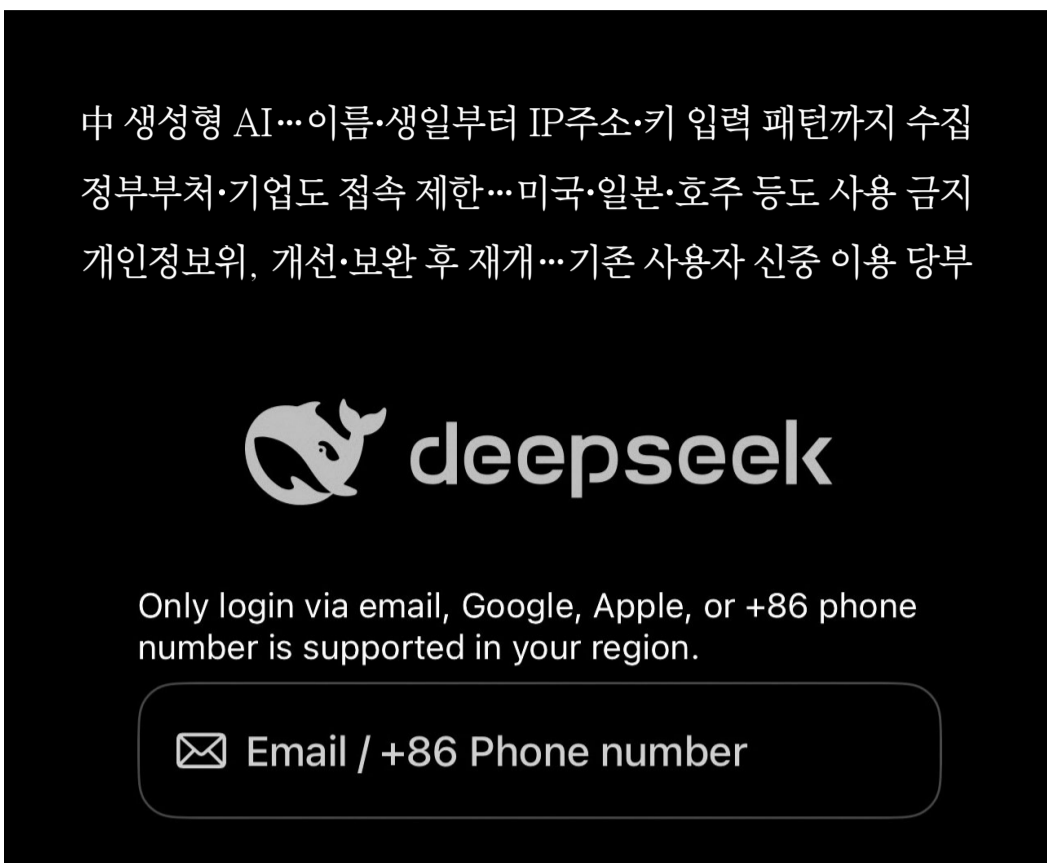
내 개인정보가 중국 서버로... '딥시크' 사용 중단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딥시크의 언어 모델 제품이 글로벌 AI 업계를 강진시키더니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논란 등 보안 우려에 결국 제동이 걸렸다.

◇ 딥시크 파장과 논란

지난달 20일 딥시크는 자체 AI 모델 '딥시크-R1'과 AI 챗봇 '딥시크'를 출시했다. 딥시크는 기존 검색 엔진과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AI 기반 검색 플랫폼으로 알려졌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발자와 기업들에게 관심을 받았다. 'R1' 모델을 발표한 딥시크의 언어 모델이 같은 분야 선두주자인 오픈AI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에서 개발한 AI 챗봇인 딥시크는 미국 앱 스토어 1위를 달성했다. 특히 오픈 AI 등 주요 기업의 AI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개발 비용은 10분의 1 수준인 추론 AI 모델 'R1'을 선보였고, AI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던 미국 빅테크들과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이에 따라 반도체 시장도 출렁였다.

딥시크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하고, 데이터 처리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딥시크가 이용자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 뿐만 아니라 인터넷 IP주소, 고유 장치 식별자, 키 입력 패턴까지 수집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 위치한 딥시크 서버에 이용자 정보가 전송된다는 점이 데이터 약용 우려를 키웠다. 또 이용자가 챗봇에 입력한 AI 모델 훈련에 활용하도록 허용할지 선택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딥시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져 신중히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국내 기업·기관들,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

저비용과 고효율 인공지능 모델인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등의 논란을 빚으면서 결국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오픈소스 기반 모델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유출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져서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조치다. 경찰과 금융기관 등도 딥시크 접근 차단 조치에 나선 가운데 카카오톡이 이달 초 딥시크가 이용자 정보·IP·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전부 중국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며 사내 업무 목적의 딥시크 이용을 금지했고, 시중 은행과 신세계, 이마트 등 유통기업들도 딥시크 차단에 동참했다.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대부분의 부처도 정보보안을 이유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

크의 접속을 제한했다.

◇ 딥시크 국내 사용 당분간 중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과 보완이 이뤄진 이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잠정 중단되는 점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국내외의 모든 앱 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 사용자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등의 공식 질의를 보냈다. 개인정보위는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 미흡한 부분을 일부 확인했고, 잠정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했다. 딥시크 사는 최근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해외 현황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딥시크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텍사스주, 정보 소유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 해군, 미국 우주항공공군에서도 딥시크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연방 하원은 정부 기관 기기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도 공무원 딥시크 사용을 제한했고, 호주·이탈리아·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 시스템 등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쏟아 IT 정보

KT, AI문해력시험 'AICE' 시행

KT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인공지능(AI)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 올해 'AICE' 정기시험을 격월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AICE는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AI 문해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으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 민간자격'을 부여받았다.

AICE 시험은 취업준비생이나 기업의 실무자를 비롯해 청소년과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과 수준, 상황에 따라 필요한 AI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베이직(비전공자), 어소시에이트(전문공자/기획자), 프로페셔널(전문공자/개발자), 주니어(중고교생), 퓨처(초등학생) 총 5단계로 구성됐다.

AICE 어소시에이트 정기시험은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시행된다. 다음 달 24일부터 AICE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6월에는 오프라인에서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성장마일리지...AI 지원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와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의 '성장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오는 7월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업 성장 단계에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새상·파워 등급 판매자를 대상으로 AI 교육·인프라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씨앗 등급에서 새상·파워 등급으로 승급한 판매자는 각각 성장 마일리지 30만원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성장 마일리지는 비즈니스로 전환해 검색 광고에 활용하거나, AI 마케팅 등 커머스 솔루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 과학문화 홍보단 '루체스타' 9기 모집

국립광주과학관, 3월 18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청소년 과학문화 홍보소통단이자 과학커뮤니케이터 역할을 수행할 루체스타 제9기를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

국립광주과학관의 빛나는 별을 의미하는 루체스타(Lucestar)는 호남권역 대표 청소년 대외활동이다. 과학을 함께 이야기하고, 지식을 나누고 싶은 열정이 있는 호남권역 청소년(초등 4학년~고등)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총 100명의 단원을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이다.

루체스타의 주요 활동은 ▲과학관 전시·교육 등의 행사 참여와 홍보 ▲과학실험, 콘텐츠 제작 등의 과학문화 확산 ▲다양한 콘테스트 참여 등이다.

루체스타 단원에게는 ▲국립광주과학관 상설전시관·특별기획전 무료 이용(월1회, 동반 3인까지) ▲1일 교육프로그램 무료 이용(월 1회, 단원 한정) ▲봉사활동 실적 인정(월 3시간) 등의 혜택



제8기 루체스타 발대식 사진.

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에는 ▲연말 우수활동 단원 선정 시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명, 광주시장상 1명, 광주시교육감상 1명, 국립광주과학관상 10명) ▲동아사이언스 과학콘텐츠 할인 등 더욱 확대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공고는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지구 온도 1도 오르면 산불 소실 면적 14% ↑

IBS 기후물리연구단 시뮬레이션

기후변화로 지구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매년 산불로 소실되는 지구 면적이 14% 늘어날 것이라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나왔다.

16일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따르면 기후물리연구단 연구팀은 화재 발생과 식물, 연기, 대기, 태양복사열 등 산불과 관련한 각종 변수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다.

최근 초대형 산불이 지구 곳곳을 휩쓰는 빈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산불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식물에 저장된 탄소의 양, 강수량, 낙뢰 같은 기후변화로 변화하는 화재 관련 요인의 상대적 영향을 정량화하려면 이들 간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풀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연구팀은 IBS가 보유한 슈퍼컴 '알레프'로 전 지구적 모델링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산불의 연료가 되는 식물의 성장과 지구 습도가 산불의 주요 원인을 확인했다.

산불을 일으키는 변개는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1.6% 늘어나고 미국 동부,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이 큰 영향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대형 산불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심화할 지역으로는 아프리카 중부와 남부, 마다가스카르, 호주, 지중해 일부 지역 및 미국 서부 등이 꼽혔다.

연구팀은 산불로 발생하는 연기가 햇빛의 투과를 줄여 특정 지역의 기온을 떨어트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도 처음으로 밝혀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전 지구적으로 산불 발생을 잘 예측했지만, 최근 북반구 영구동토층이 녹으며 발생하는 북극 산불의 영향은 과소평가했다며 이 지역의 변화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